



5년

미래 먹거리 바이오산업 현장 소통

전주매일

2026년 3월 9일 월요일 (음 1월 21일) 제392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맛있는 딸기 사러 왔어요”... 완주 삼례 딸기대축제



제24회 완주 삼례 딸기대축제가 열린 지난 7일 완주군 삼례농협 공영주차장 특설판매장이 딸기를 구매하기 위해 몰린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6일에 열린 삼례 딸기대축제는 8일 성황리에 마쳤다. /완주=연재복 기자

피지컬 AI 국가전략 '맞손'

도·과기부, 타운홀 미팅 계기... 'K-팩토리' 거점 육성 실증에서 물류까지... 실증 모델 지역 산업 전반 확산

전북특별자치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손잡고 피지컬 AI 기반 제조혁신의 미래를 설계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첨단 AI 실증단지 조성부터 글로벌 수준의 데이터센터 구축, 전문 인력 양성 체계까지 전부를 'K-팩토리' 거점으로 세우겠다는 구상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타운홀미팅에서 피지컬 AI의 본질을 비범함에 빚어 풀어냈다. 밤·고기·채소라는 이질적인 재료가 고추장 하나로 깊은 풍미를 빚어내듯, 이기종 로봇과 복잡한 공정 기기·현장 데이터·숙련 기술이 인공지능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하나의 유기적인 공장으로 진화한다는 것이다. 배 장관은 '스스로 학습하고 협업하며 진화하는 공장이 전북에서 완성되고, 이 모델이 비범법처럼 세계로 뻗어나가는 날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구상의 핵심 동력은 전북대학교를 거점으로 올해부터 5년간 추진되는 '전북 AX R&D 사업'이다. 약 1조원 규모의 이 사업은 지난해 전북대 피지컬 AI 실증 랩 성과를 발판 삼아 피지컬 AI 공장 구현에 필요한 요소를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간다.

핵심에 놓이는 점은 협업 지능 기술이다. 비범법의 비범 고추장에 해당하는 이 기술은 이기종 기계와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고 유기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운영 소프트웨어다. 외산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 피지컬 AI 협업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다종로봇이 한 몸처럼 작동하는 모델을 실증한다는 것이 과기부의 방향이다. 여기에 물류 로봇·정밀 조립·AI 품질검사 등 공장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응용기술을 염선에 실증함으로써, 개별 기술들이 어우러진 하나의 완성된 통합 시스템을 구현한다.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도 새만금에서 형태를 갖추고 있다. 올해 설계에 착수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새만금 AI 데이터센터는 GPU 5만 장·100MW급 전력이 투입되는 대형 시설로, 투자 규모만 약 5조 8,000억원에 달한다. 지난달 27일 군산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이 AI 데이터센터 설립을 공식 약속하며 이 흐름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과기부는 전력·통신은 물론 규제 혁신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지원으로 새만금이 서부권 AI 거점으로 확

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피지컬 AI 실증 모델을 지역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전략도 추진한다. 생산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을 데이터로 있는 지능형 물류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제조업 현장 중심의 적용과제를 확대해 실증 성과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체질 개선과 산업 경쟁력 고도를 함께 이룰겠다는 복안이다. 기술·인프라와 함께 인력 기반 구축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지난 2023년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7년에는 AI 분야에서만 1만 2,800명의 신규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전북에 고급 연구인력 확보·재직자 전환 교육 실시·현장 실무인력 양성의 세 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피지컬 AI 특화 인력양성기관 설립이 요구되고 있다. 1조 원짜리 실증단지가 단순 인프라 구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산업 확산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는 전북대를 중심으로 AI 융합대학원 등 전문 인재 양성 거점을 마련해 고급 연구인력 확보와 산업 현장 수요에 맞춘 인제 공급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전북 선정 '큰 공'

민주 김윤덕 의원, '치유관광산업 육성 법안' 대표 발의... 국회 본회의 통과 문체부 사업 공모 시작 후 전북자치도 등과 소통... '관광 전북' 알리는 계기

전북 출신이자 국토교통부 장관을 겸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사업'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최종 선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번 공모 선정 과정에서 막중한 역할을 했던 김윤덕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중에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의 관련 현안사업 역시 알뜰히 챙겨가는 면모를 보여준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8일 김 의원의 원내에 따르면 전북자치도가 이번 문체부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에 선정되면서 전북이 보유한 고유의 치유 자원과 결합한 관광상품 개발과 민·관 학의 연계 지원으로 전북민의 매력적인 고부가가치 웰니스 관광산업의 육성될 기틀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지난 2024년 8월, 전북자치도가 이 산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 당위성을 마련한 '치



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2025년 3월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지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와 관계부처 관계자들을 만나 사업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분주한 활동을 펼쳤다. 이 법안이 이번 전북자치도가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김 의원의 큰 그림이었다. 또한 김 의원은 문체부의 사업 공모가 시작된 이후 심사부터 선정 결과까지 문체부 및 전북자치도와 소통하며 끝까지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난달 27일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했던 전북 타운홀 미팅 간담회 자리에서 김윤덕 의원은 "전북 내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체류형 관광과 웰니스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 도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번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공모사업의 선정으로 숲과 자연이 맛있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관광 활성화 및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속 가능한 웰니스 관광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비빔국수 돌아가는 삶 속에서 지친 사람들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를 방문해 힐링과 치유, 안정을 찾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전북의 웰니스 관광을 비롯한 여러 현안과 관련된 일들이라면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총북 등 6곳을 선정했으며 지역의 웰니스 특화 자원을 집적해 고부가가치 관광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4억5,000만원의 마중물 예산이 지원된다.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3년간 국비 13억5,000여만원의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보여 관광 전북을 다시한번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예상된다. /권희성 기자·이만호 기자

임실 진구사지 석조비로자나불 좌상, '국가 보물' 되다

1963년 석등 보물 지정 후 63년만에 이루어진 쾌거



진구사지 석조비로자나불 좌상

임실군 신평면 소재 진구사지에 있는 '임실 진구사지 석조비로자나불 좌상'이 지난달 28일 국가 보물로 지정 고시됐다. 진구사(珍丘寺)는 '삼국유사'에 따르면, 고구려계 보덕화상(普德和尚)이 전주로 내려온 이후 그 제자 적멸(寂滅)과 의웅(義興) 스님에 의해서 창건된 사찰로 알려져 있으며, 870년대 전후로 보물 '임실 진구사지 석등', 도 유형문화유산 '증기사 철조여래좌상' 등과 함께 조성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진구사는 조선 태종대 88개의 자복사(資福寺) 중 하나로 지정될 정도로 위상을 유지했으며, 임실 현 사찬(雲水) '문수지(雲水誌)'(1675·1730)는 조선 후기 석등 석불 철불 등이 그대로 절터에 있었다는 것을

년 임실 용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 좌상, 2021년 '임실 진구사지 석조비로자나불 좌상'으로 이름이 고쳐졌으며 2014년 증기사에서 진구사지 경내 보호각으로 옮겨져 오늘에 이른다. 한편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비록 광배가 없고, 오른팔 일부가 유실되었으나 불좌상과 대좌가 완벽하게 남아있다. 특히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화엄종의 주불로서 형체가 없는 진리 그 자체의 법신불이자 깨달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통일신라시대 말기인 9세기 유행하던 선종에서 강조하는 불성(佛性)과 사상적으로 상통함에 따라 선종의 주존불로 수용, 봉안된 것으로 보인다. 임실군 관계자는 "이번 보물 지정은 1963년 임실 진구사지 석등이 보물로 지정된 이후 63년만에 이루어진 쾌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60 MUJU

산너머에서 불어온 바람
나를 깨우고
하늘 품으로 흩날리는 꽃잎
마음을 간질이는 봄

가자, 무주로!
꽃내음 가득한
자연특별시 무주의 봄으로...

QR코드를 찍으시면
지역특산물 대표관광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행문의 1899-8687